



장현식

장현식 “전반기에 욕심 지나쳐 … 후반기엔 물 흐르듯이”



‘과유불급’의 전반기를 뒤로하고 장현식이 물 흐르듯 후반기기를 달린다. 9위로 시즌을 마무리했던 지난 시즌 KIA 타이거즈에서는 장현식이 유일한 ‘타이틀 홀더’였다. 그는 34개의 홀드를 수확하면서 KBO 시상식에서 ‘홀드왕’ 트로피를 품에 안았다. 기대감으로 시작한 올 시즌, 전반기는 아쉬움이 더 진하게 남는다. 전반기 38경기에 나온 장현식은 37.2이닝을 소화하면서 4.06의 평균자책점으로 2승 2패 1세이브 14홀드를 기록했다. 시즌 출발은 나쁘지 않았지만 기록을 보이면서 고전했다.

전반기 37.2이닝·평균자책 4.06·2승 2패 1세이브 14홀드 ‘고전’ 과한 목표에 오버페이스… “처음부터 다시 차근차근 하겠다는 각오”

장현식은 “욕심이었다”고 전반기를 평가했다. 장현식은 “전반기는 과유불급이었다. 너무 잘하려다 보니까 오히려 안 되는 것 같다. 기본에 충실하게 해야지 결과가 잘 나오는 것 같아서 다시 기본을 잘 유지하고 있다”며 “더 강한 볼 던지고 싶고, 상대가 못 치게 던지려고 했던 게 오히려 아쉬운 결과가 나온 것 같다. 욕심이 과했다. 오히려 그런 게 역효과가 난 것 같다”고 돌아봤다. 출발이 좋지 못했던 지난 시즌을 생각하면서 초반부터 욕심을 냈다. 장현식은 “작년에는 후반기만 잘했다. 올해는 전

반기부터 잘하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몸이 안 됐다. 몸이 다시 만들어지고 해야 했는데 꺾였던 것 같다. 많이 던지고 시즌을 보내는 것이 처음인데 욕심을 털 내야 했는데 욕심을 냈다”며 “(홀드왕이라는) 부담은 없었고 의식은 안 됐는데 너무 과하게 목표를 설정하고 들어간 것 같다. 오버페이스를 했다. 지니친 욕심은 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장현식에게 지난해는 ‘반전의 시즌’이었다. 스프링캠프 명단에는 제외됐지만, 묵묵히 시즌을 준비하면서 마침내 필승조로 입성했고 홀드왕까지 차지

했다. 매일 뛰고 또 뛰면서 반전의 시즌을 보냈던 만큼 이번 겨울에도 장현식은 자신을 몰아붙이면서 독하게 시즌 준비를 했다. 장현식은 “더 하기보다는 내 몸을 아끼고 그래야 했는데 생각은 또 그렇지 않았다. 내가 못한 것이다. 휴식도 더 잘 취하고 운동도 효율적으로 해야 했다. 많이 하는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닌데 조절할 줄을 모르니까 그런 부분이 아쉽다”고 말했다. 나름 이유는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핑계’라는 게 장현식의 이야기다. 장현식은 욕심을 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차근차근 물 흐르듯 후반기기를 보내겠다는 각오다. KIA 입장에서 장현식의 안정감이 후반기 순위 싸움의 중요한 요건이다.

장현식은 “모든 게 핑계라고 생각하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할 생각이다. 전반기는 지나간 일이다. 후반기에는 최대한 좋은 경기력 보여드려야 한다. 올해도 잘 마무리 하고 싶다”며 “빠른 공을 던지고 이런 것보다는 타자랑 싸울 수 있는 게 중요한 것 같다. 처음에는 상대를 압도하고 싶었는데 그것만으로만으로는 안 됐다. 하던 대로 하루하루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전반기 선발진 위기 속에서) 하나로 뭉치는 계기가 된 것 같다. 서로 나갔을 때 응원해주고 막아주고 그런 마음이 컸다. 다들 잘 뭉치고 있어서 누만 되지 말자는 생각이다”며 “올 시즌 당당히 마무리하고 팀이 가을 야구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게 목표다”고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IA, ‘의로운 광주 시민’ 시구자로 초청

‘의로운 시민들’이 KIA 타이거즈 승리를 기원하는 시구자로 초청됐다. 27일 챔피언스필드에서는 KIA 타이거즈와 NC 다이노스의 시즌 10차전이 열렸다. 이날 경기 전 ‘의로운 시민’ 김지수(43)씨가 시구자로 마운드에 올랐다. 한국수자원공사 전남지역협력단에 근무하는 김씨는 지난해 2월 광주시청 1층 화장실에서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노인을 발견, 구조 요청을 한 뒤 넥타이를 풀어 기도를 확보하고 119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을 펼쳤다. 다른 이의 생명을 구한 김 씨는 정의를 실천한

광주시민에게 수여되는 ‘의로운 시민상’을 받았다. 28일 경기에서도 의로운 행동으로 본보기가 된 유대환·최민혁(이상 광주일고 3년)군이 시구자와 시타자로 경기장을 찾았다. 두 사람은 지난 6월 광주 남구 한 공원에서 여학생 2명이 성추행을 당하는 것을 목격하고, 곧장 112에 신고했다. 이어 출동한 경찰관에게 여학생들의 상태와 현장 위치를 알리는 등 범인 추격과 검거에 기여했다. 이들은 공로를 인정받아 광주남부경찰서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PGA 투어, LIV 출전 선수들 PO 자격 박탈

미국프로골프(PGA) 투어가 사우디아라비아 자본이 후원하는 LIV 골프 인비테이션얼 시리즈로 이적한 선수들에 대해 페덱스컵 플레이오프 대회 출전을 금지했다. PGA 투어는 27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플레이오프 대회 출전 자격을 반영한 페덱스컵 순위’를 발표했다. PGA 투어는 대회별 성적을 페덱스컵 포인트로 환산, 정규 시즌이 끝난 시점에 페덱스컵 포인트 상위 125명을 추려 플레이오프 대회 출전과 다음 시즌 출전 자격을 준다. 올해 정규 시즌은 이번 주 로켓 모기치 클래식과 8월 4일 개막하는 윈덤 챔피언십 2개 대회가 남았다. PGA 투어는 정규 시즌 종료를 앞두고 플레이오프 대회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선수들을 대상으로 페덱스컵 순위를 재조정했다.

이미 LIV 시리즈 대회에 출전할 선수들에 대해 앞으로 주관 대회 출전을 금지한 PGA 투어가 LIV 시리즈 선수들의 플레이오프 대회 출전 자격을 박탈한 것은 예상됐던 수순이다. 페덱스컵 랭킹 20위였던 테일러 구지(미국)를 비롯한 8명이 이날 PGA 투어가 발표할 새 페덱스컵 포인트 순위에서 제외됐다. 또 29일 개막하는 LIV 시리즈 3차 대회에 출전 예정인 제이슨 코크랙, 찰스 하월 3세(이상 미국), 폴 케이지(잉글랜드) 세 명은 아직 순위에 남아 있지만 이번 주 LIV 시리즈 대회가 끝나면 순위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페덱스컵 순위 상위 125명이 출전하는 플레이오프 첫 대회는 8월 11일 미국 테네시주 멤피스에서 개막하는 페덱스 세인트주드 챔피언십이다. 이후 상위 70명만 나가는 플레이오프 2차전 BMW 챔피언십과 상위 30명이 시즌 챔피언을 놓고 경쟁하는 플레이오프 최종전 투어 챔피언십으로 2021-2022시즌이 마무리된다. /연합뉴스

김민재, 이탈리아 축구 나폴리 메디컬테스트 무사통과

보장 3년·옵션 2년 계약 한국 선수 3번째 세리에A 입단

한국 축구대표팀의 핵심 수비수 김민재(26)가 이탈리아 축구 명문 나폴리 입단을 위한 메디컬테스트를 무사통과했다. 스카이스포츠 이탈리아는 26일(현지시간) “김민재가 메디컬테스트를 통과했고, 내일 보장 3년과 옵션 2년을 기간으로 하는 계약을 맺는다”고 보도했다. 이어 “4500만유로(약 598억원)의 바이아웃 조항이 (계약에) 삽입됐는데, 이탈리아 구단은 이 조항을 활성화할 수 없다”고 전했다. 즉 해외 구단이 아닌 이탈리아 프로축구 세리에A의 타 팀은 이런 바이아웃 금액을 지불하면서 나폴리에서 김민재를 데려가지 못한다. 이 때에 소속 이적 시장 전문 축구기자인 잔루카 디마르시오도 이날 개인 홈페이지를 통해 “내일 발표될 김민재의 계약을 보면 이런 바이아웃 조항을 2023년 여름부터 활성화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디마르시오는 빌라 슈투어트 병원에서 5시간가량의 검진을 끝낸 김민재가 선수단이 전지 훈련차 머무는 중서부 아브루초주(州) 리비소놀리의 숙소에 도착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나폴리에 입단하는 선수들은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빌라 슈투어트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는 경우가 많다. 지역 매체 스파치오 나폴리도 현지 시간으로 이날 오후 5시 45분께 환히 웃으며 병원을 나서는 김민재의 사진을 올리며 메디컬테스트를 마쳤다고 보도했다. 김민재가 나폴리의 하늘색 유니폼을 입으면, 안정환, 이승우(수원FC)에 이어 3번째로 이탈리아 세리에A에서 뛰는 한국 선수가 된다.



한국 축구대표팀의 ‘괴물 수비수’ 김민재가 이탈리아 로마에 입성했다. 김민재는 26일 빌라 슈투어트 병원에서 메디컬 테스트를 받았다. /연합뉴스

지난 시즌 베이징 귀안(중국)을 떠나 페네르바체(튀르키예)에 입단한 김민재는 곧바로 주전 입지를 굳히고 정규리그와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 유로파 콘퍼런스리그 등 ‘빅리그’에서도 통할 경기력을 보여줬다. 지난 시즌 정규리그 3위 나폴리는 새 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에서 경쟁한다.

현지 보도를 보면 나폴리는 김민재 영입을 위해 현 소속팀 페네르바체에 1950만유로(261억원)를 이적으로 내고, 김민재에게 연봉 250만유로(33억 5000만원)를 지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폴리는 첼시(잉글랜드)로 떠난 세네갈 국가대표팀 주장이자 2014년부터 팀의 후방을 책임졌던 세리에A 정상급 수비수 칼리두 콜리발리의 공백을 김민재로 메울 심산이다. /연합뉴스